

남해 독일마을 광장에 '독일식 청년마켓' 연다

내달 9일 오후 1~6시 '도르프 마켓'

지역상품 파는 청년창업 데뷔무대

오는 21일까지 일반·청년 셀러 모집

기사입력 : 2023-08-09 08:12:34



독일식 청년마켓이 열리는 남해 독일마을 전경./남해군/

남해 독일마을 광장에 독일식 청년마켓이 문을 연다.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첫 시범 운영하는 '도르프 청년마켓'은 내달 9일 오후 1~6시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남해군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도르프 청년 마켓은 경남도와 남해군, 남해관광문화재단이 함께 손잡고 진행한다.

처음 시도되는 도르프 마켓은 군내 인기 있는 지역 상품을 독일마을 광장에서 한 번에 만날 수 있게 하는 작은 마켓이자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예비청년창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데뷔 마켓이다.

지역 셀러(일반 셀러)와 청년 셀러로 나눠 모집한다. 창작상품, 수공예품, 먹거리, 특산품 등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한 문화 체험 운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청년 셀러의 경우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되 남해군 청년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45세까지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개설자로 한정한다. 독일마을에서 열리는 이번 마켓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더불어 판매대와 테이블보, 의자 1개, 공통의 앞치마 등을 제공한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독일마을 광장이 오늘날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마켓이자 기회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르프 청년 마켓에서 여러분의 처음 마음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모집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문의는 남해관광문화재단 미래콘텐츠사업팀
(☎055-864-4509).

이병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